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430)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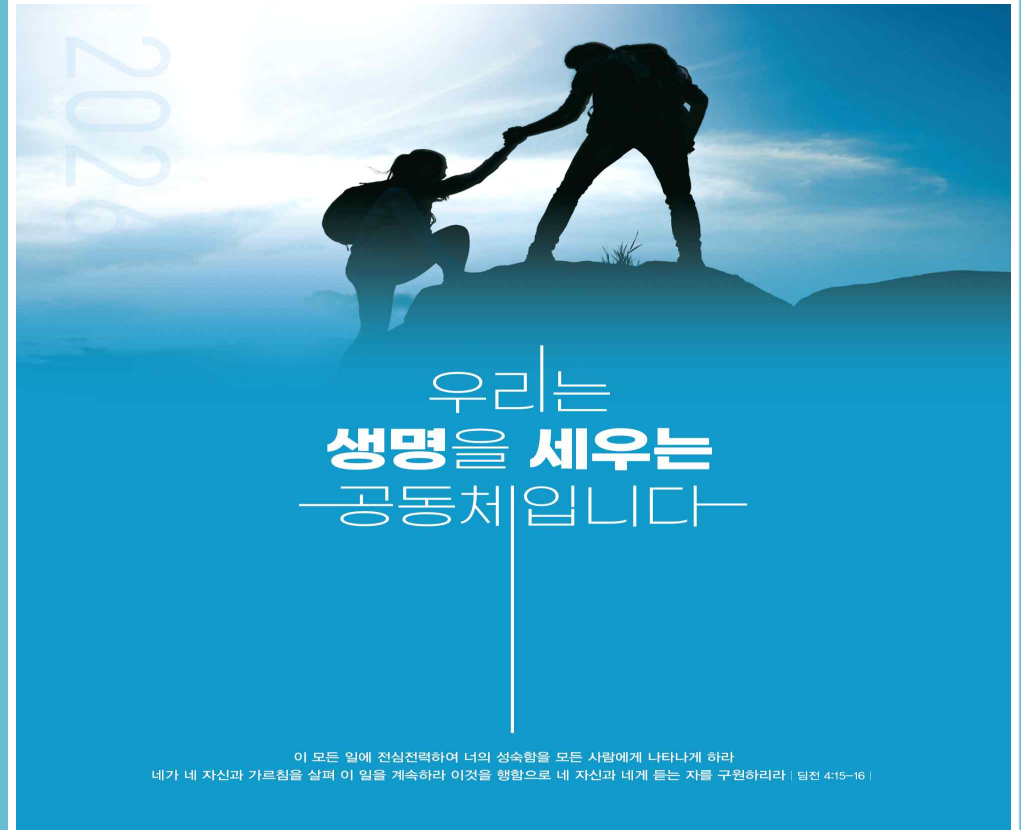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9월 1주

가정예배



신앙고백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족 모두가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찬송가 430장(주와 같이 길 가는 것) (QR 코드로 함께하세요)



말씀읽기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 마태복음 9:1-8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인도자가 내용을 읽습니다]

제목: 평범한 매일이 곧 기적입니다.

말씀듣기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덩이를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고 힘없는 사람을 권력자의 위치에 올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인간다움을 선물해주셨고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잃어버렸던 그동안의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당사자나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장애를 고쳐주심으로 그는 죄인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잃어버렸던 가족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여 가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 우리의 매일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일을 기대하기보다 평범한 매일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나누기

[아래의 질문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 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② 현재의 평범한 삶을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기도제목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한 명이 마무리 기도합니다]

- 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 ② 평범한 매일의 기적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